

-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위해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로서 “다누리콜센터1577-1366”을 운영하고 있으며, 이주여성 전문상담원이 365일 24시간 13개 언어로 생활정보 제공, 통역, 위기가족 긴급지원과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.

- 이번 두 기관의 업무협약도 그 연장선에서 진행된 것으로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관련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으며, 이를 바탕으로 언어장벽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여성들의 기본인권 옹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-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김혜영 이사장은 “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의 상호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면밀히 협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지속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.”고 밝혔다.